



[라이프]
이마트24
경영주와 공유
‘소통의 장’
니



Life

[바이오]
SK플라즈마
인도네시아에
혈액제제 공장 건설
L2



두바이에 GBC 개소... 중동·아프리카 진출 ‘전진기지’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이영 중기부장관 등 현지서 개소식
개방형 공간, 특화프로그램 등 ‘개편’
美·中 등 총 12개국에 20개소 운영
中企 해외 진출 위한 핵심 거점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아랍에
리미트(UAE) 두바이에 20번째로 문을
열었다.

두바이 GBC는 우리 기업들의 중동,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GBC센터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
르면 이날 오후 두바이 현지에서 글로
벌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중진공 우영환 부이사장, 류세승 전 U
AE 대사, 문병준 두바이 총영사 그리고



두바이에선? 제벨알리자유경제구역청
(JAFZA) Abdulla bin damithan 대
표(CEO)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두바이 제벨알리 경제자유구역에 자
리잡은 GBC는 2006년 말 중진공의 두
바이 수출인큐베이터(BI)로 시작했다.
현재 위치한 JAFZA18에선 수도 아

부다비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 총
403.8㎡(약 122평) 공간에 컨퍼런스룸,
소회의실, 공유오피스, 오픈형회의실,
창고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중진공에 따르면 두바이 거점에선
‘UAE 의료인증 획득 및 제품개선 현지
화’ 지원 등을 비롯해 지역유망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Pre-BI 제
도 등을 운영해왔다. 입주기업들에 대
한 분야별 맞춤 시장 정보 제공과 무역
사절단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두바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
소를 시작으로 12개국, 20개 중소벤처
기업 해외 진출 거점을 글로벌비즈니스
센터로 전환하고, 기존의 공간 제공 위
주에서 각종 특화 프로그램 제공 및 현
지 전문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킹 연
결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GBC를 현재 입주형 독립
공간→개방형 공유 공간, 보육 기능 중
심→특화프로그램 제공, 현지 정부 협
업 중심→현지 네트워크 다변화 방향으
로 개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수 입주기업에

게 독립공간을 독점 제공하던 방식에서
개방형 운영으로 네트워킹·협업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현지 네트워크
다변화를 통해 국내외 기업인의 연결
거점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
명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이 되
는 ‘제2의 중동 붐’을 선도하기 위해 사
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동 시장 진
출을 위한 지원도 중점 추진한다.

GBC(기존 BI)는 98년 미국 시카고
에서 처음 문을 연 이후 북미에만 로스
앤젤레스(LA), 워싱턴, 뉴욕에 4곳이
있다.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 러시아 모
스크바, 일본 도쿄, 베트남 하노이, 중
국 베이징 등에 각각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5928개사가
이 공간을 이용했고, 그동안 총 93억 달
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
됐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T, 일본 시작으로 K-푸드 현장 세일즈 나서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단’ 출범
바이어 간담회, 식품박람회 홍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김
춘진 사장이 지난 2월 ‘K-푸드 수출 확
대 추진단’을 출범하고 직접 단장을 맡
은 이후 올해 농수산물 수출목표 135
억달러 달성을 위해 일본에서 첫 현장
세일즈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7일 일본 도쿄를 방문
해 한국식품 주요 바이어인 재일한국농
식품연합회와 동일본수입유통협의회
를 잇따라 만나 일본 내 K-푸드 판매
동향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한
국 농수산물 대일 수출 활성화를 위
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김 사장은 일본 도쿄 빅사이트



김춘진 aT 사장(우측 1번째)이 지난 7일 일본
‘FOODEX JAPAN’ 행사장 현장에서 한국 농
수산물품을 홍보하고 있다.

/aT

국제전시장에서 올해 48회를 맞은 ‘동
경식품박람회 2023(FOODEX JAPA
N 2023)’를 찾아 한국관을 살펴보고 행
사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
다. 이후 일본 현지인 대상으로 건강하
고 우수한 K-푸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했다.

한국관에는 김치, 인삼류, 음료 등 K
-푸드를 수출하는 70개 업체가 참여해
일본 식품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시장
개척에 나섰다. 공사는 한국식품의 우
수성과 현지에서 인기있는 수출유망 품
목 등을 ‘K-STREET FOOD 홍보관’
을 통해 현지 바이어에게 적극 알리 수
출 영토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2022년 대일 농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21억6000만달러로, 일본은 시
장 잠재력이 큰 K-푸드 수출 2위 국가”
라며 “올해도 수출유망품목 발굴과 흥
보마케팅 전개 등 전방위적 수출지원으
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제조 소기업 경영 지원

컨설팅, 기술지원 등 558억 규모 투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
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한다.

8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
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총 558억 규모다. 이번 1
차 모집은 일반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로 구

성됐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경영혁
신 바우처 지원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친
환경 기술·업종 영위기업을 집중 지원하
는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를 새롭게 도
입했다.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세부지원 내용
을 다각화했다. 진로제시컨설팅을 통해
회생 초기 진입이 필요한 기업을 선별
해 회생인가까지 연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참여신청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고한 이후 혁
신바우처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벤처협회, 벤처기업 미국 시장 진출 돕는다

한국SW협회·82스타트업과 맞손

벤처기업협회가 한국소프트웨어산
업협회, 82스타트업과 손잡고 국내 벤
처기업, 스타트업들의 미주 시장 진출
을 돕는다.

‘82스타트업’은 프라이머사제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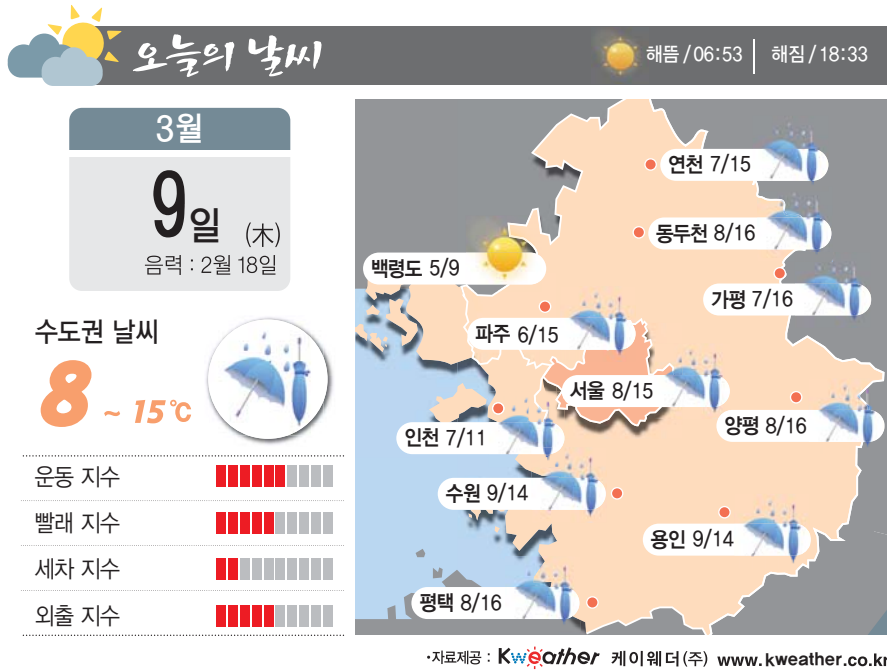
스 이기하 대표가 주도해 결성한 비영
리 커뮤니티로, 샌드버드 및 몰로코 등
한국인이 창업해 미국에 본사를 둔 유
니콘 5곳을 포함해 700여개 기업이 참
여하고 있는 실리콘밸리내 한국 스타트
업 모임이다.

8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국내 우수한 벤처·소프트웨어기업의 미
주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네트
워크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과 미주 기
반 한국 스타트업 간 동맹을 통한 교류
증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
다.

두 협회는 협약을 통해 미주 실리콘
밸리 한국 스타트업 모임이 더욱 활발
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게
획이다.

/김승호 기자



버스타비 **야구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손흥민, 돌아온 콘테와 골 도전...“모
든 것 쏟겠다”
▲세리에A 우승 기대 김민재 “벽이라는
별명이 가장 좋아”
/사진 뉴시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 입
국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
▲프로축구 K리그1 1·2라운드 관중, 코
로나 전보다 11% 증가



▲국강행군 펼친 WBC 대표팀...‘부상
경계령’
/사진 뉴시스
▲미국 야구 전문가 “한국, 일본 꺾고
WBC 우승할 것”